방송에서 만난 '자기님'들…유쾌하고 감동적인 '사람 여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

이언주 지음

우리나라 사람을 '판다 사랑'에 빠지도록 한 이가 있다. 베테랑 사육사인 강철원. 베테랑 사육사인 그도 동물과 소통하는 일은 버겁고 어렵다. 그는 판다 짝짓기에 성공해서 할아버지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 물론 그 꿈을 이뤘다.

2016년 암수 판다 한 쌍이 한국에 들여졌다. 관록이 있는 강철원 사육사에게도 사육과 번식은 어려운 과제였다. 그는 한국에 데려오기 전 중국으로 건너가 판다와 친해지는 연습을 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국에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는 만 4년이 되면 중국으로 가야한다. 짝을 만나기 위해서다. 강 사육사 또한 판다 푸바오와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는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다.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어떤 상황이 오든 난 늘 너의 편이고 너를 생각하고 있어."

위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던 사육사 강

철원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일부다. 대표 토크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진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언주 작가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작가는 그동안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꽃보다 할배' 등 유수의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2018년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첫 방 이후 수백 명의 출연자를 만나왔다. 물론 카메라 밖에서다. 스쳐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의미있는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묶어냈다.

한마디로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은 방송작가 이언주의 '사람 여행' 에세이라 해도 무방하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에서 보듯 책에는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감성이 녹아 있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에 대한 글도 만날 수 있다. 조성진에게는 피아노가 쉬워 보였다. 어느 분야나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이들은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성진은 피나는 인고를 감내하는 연습 천재였다. 조성진의 말이다.

"제가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정말 만족할 만한 연주는 열 번? 몇 번 안 됐을 거예요. 그 횟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조성진은 1년에 100회 정도 연주를 위해 세계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던 강철원 사육사가 판다 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왼쪽)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를 하는 모습. 〈비채 제공〉

돌아다닌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주를 했는데, 만족할 연주는 고작 10회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연습벌레', '치열함'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작가는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으로 채워갈까'라고 반문한다.

소설가 정세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유퀴즈'에서 소개한 정세랑은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자였다. 그만큼 그의 소설 세계는 '거대 지렁이', '외계인과의 사랑' 등 기발한 상상을 자랑한다. 이색적인 소재는 일상과 맞닿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새로 나온 과자를 먹고,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하고, 아주 낯선 분야의 책을 읽는" 등 열린 마음이 창작으로 연계됐다.

대학 졸업을 앞뒀던 이지선은 스물 셋에 끔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지금은 작가이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지만 사고 당시 그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지선은 "어느 날부터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그래서 스스로 그냥 말을 바꾼 거예요. '사고를 만났다'로."

이지선은 당장의 삶이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대감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다.

이밖에 책에는 화학자 곽재식, 모델 최소라, 경주 최부자댁 최창호, 이삭토스트 대표 김하경, 200명 아이들의 엄마 임천숙, 왕진 의사 양창모 등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다.

〈비채·1만8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30 핵심 미래 기술 50

김들풀·남복희 지음

오늘날을 일컬어 기술혁명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며 예측을 불허할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당연히 기술의 진보는 우리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고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누군가는 기술을 활용해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약의 발판을 삼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기술의 발달에 발을 맞추느라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현재 부상하고 있는 기술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 '2030 핵심 미래 기술 50'은 미래기술과 사회변화의 양상을 진단했다. 책은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김들풀 대표와 114 안내, 내비게이션 등으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 남복희가 저자로 참여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국방 FM '국군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방송한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하루 한 가지씩 알아보는 2030 핵심 미래기술 트렌드'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책은 IT·과학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기술을 담고 있다.

책에는 언급한 인공지능 외에도 메타버스, 텔레파시기술, 인공지능 유기칩, 투시기술, 유전자 가위, 생체인식, 블록체인, 드론. 3D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생체로봇 등 인류의 미래와 산업 지형을 바꿀 미래 기술이 열거돼 있다.

저자인 남복희는 "과학이나 미래 기술도 인간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의한, 인간의 것이다.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해 과학은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인간은 쉼 없이 꿈꿀 것이다"라고 말한다. 〈호이테북스·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의 모든 미술 수업

유홍준·목수현 외 지음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에게 '미술'은 어떤 과목일까. 암기하고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 딱딱한 과목 대신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노는' 수업에 불과한 과목일까.

미술이 학창 시절 잠깐 배우고 마는 교과목에 그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전문가들이 모였다. '세상의 모든 미술 수업'은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10인 10색의 미술 수업이다.

미술 평론가 유홍준, 화가 김중석, 미술사학자 목수현·우정아, 어린이미술관 운영자 김이삭, 미술치료 연구자 주리애, 그림책 작가 송혜승 등 미술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미술 수업이 책 속에서 이뤄진다.

우정아는 미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지만 알고 싶어하는 공대생들에게 이미지를 읽고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우학교 교사 노길상은 '잘' 그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표현 욕구에 주목해 OHP 필름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점을 찍어 멋진 점묘화를 완성하는 수업을 소개한다.

화가 김중석은 문해 교실 할머니들과 그림을 그렸던 경험을 들려주고, 사회적 기업 대표 이재경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미술수업이야말로 위기 청소년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술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표현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작가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게 된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같음과 다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미술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목수현) 〈창비교육·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노자 도덕경

이용주 지음

사유를 설파하듯 논설조로 쓴 '맹자'나 '장자'와는 차이가 있다. 명료한 문답체가 지배적인 '논어'와도 거리가 멀다.

'노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포리즘과 난해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동안 수많은 판본과 불분명한 해설서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노자'에는 2500년이 넘는 풍상을 견딘 '동양 사상의 진수'가 깃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주관이나 과장된 분석으로 인해 정확한 맥락과 의미를 짚는 해설서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

광주과학기술원 이용주 교수가 펴낸 '이용주의 고전 강독' 시리즈 두 번째로 '노자 도덕경'이 출간됐다. 저자는 기존의 노자 해설본들의 한계로 지적받던 편향 해설(왕필본, 하상공본, 백서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벗어나, 가장 널리 알려진 통행본을 기본으로 다른 판본까지 함께 해석했다.

노자가 강조했던 '도', '덕', '치신', '치국'이라는 네 개 주제들을 아우르며 도가사상을 해석한다. 도론, 수양론, 제왕 정치론 등 해석자마다 그동안 주목했던 철학적 요소들을 모두 긍정하면서 열린 해석을 인정한다. 여기에 효용론적 방법론까지 도입, 고전이란 읽는 이의 해석과 시대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

"거(去)는 버린다. 제거한다. 심(甚)은 지나침, 과도함, 즉 방자함이라고 읽을 수 있다. 사(奢)는 사치, 역시 지나침이다. 태(泰)는 편안함, 거만함, 무절제라고 읽을 수 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책은 '노자'를 언표 단위로 분석한다. 여기에 논리적이고 타당한 주석을 곁들여, 사료에 밀착한 귀납적 해석으로 노자 지식의 일면을 해설한다. 〈이학사·3만4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